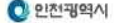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	2021년 3월 30일(화) 총 3매	
담당 부서	주거재생과	담 당 자	• 정비지원팀장 심일수 ☎440-3451 • 담당자 이상열 ☎440-3489	
사 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주민파트너와 동인천역 도시재생 참여율 높이기 나서

- ‘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’ , 첫 주민파트너 활동 시작 -
- 진행사항 알리고 주민 동참과 공감 유도 역할 -
- 4가구 1차 임명, 오는 4월 경 2차 주민파트너 공개 모집 예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30일 오후 『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』의 첫 주민파트너로 선정된 4가구에 주민파트너 명패를 전달·부착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시는 현재 추진 중인 『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』의 효과적인 재생사업 추진 및 적극 참여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‘도시재생아카이빙-파트너 프로젝트*’를 운영하는데, 그 일환으로 이날 첫 주민파트너를 선정했다.

* ‘동인천역 2030 역전(逆轉) 프로젝트’의 효과적인 재생사업 추진 및 적극 참여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도시재생 아카이빙과 연계한 파트너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주민참여도 제고

이 프로젝트는 2024년까지 인천시와 LH가 총 2,3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, 동인천역이 다시 상업과 문화 중심지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인·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기 위해 기획됐다.

시는 이를 위해 2월 초부터 2020년 진행된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한 주민 가운데, 주민협의체에 가입하고 주요프로그램(주민간담회 및 설명회·자율정비의향조사·新택리비·도시재생대학) 4개 중 3개 이상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파트너 후보군을 압축하고, 사전 인터뷰, 참여요청 절차를 거쳐 최종 4가구를 선정했다.

이 날 주민파트너 명패를 수여받은 가구는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동참과 공감을 유도하는 주민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.

구체적으로는 ▲점포 내에 마을신문, 고시·공고문, 단위사업 안내문 등 공유 자료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진행사항 홍보 ▲프로젝트와 관련한 일련의 진행 과정들을 홍보물·영상으로 제작, 사업구역 내 운영 중인 ‘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’에서 유튜브,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타 재생현장 및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.

시는 오는 4월 경 현재 진행 중인 단위사업의 참여자들, 재생사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2차 주민파트너를 공개 모집해 파트너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.

공개모집 시 2020년 도시재생 진행과정 및 주민참여활동을 공유하는 가치 “되돌아보는 2020년, 통계로 보는 동인천역 도시재생 주민참여”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의향을 더욱 증진시킬 예정이다.

최도수 시 주택복지국장은 “『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』는 오랜 기간 여러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해 낙후된 동인천 역세권 주민들이

직접 참여하는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의 촉매제이자, 지방자치제도의
근원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